

Santo Domingo de Guzmán 2022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이제는 상황이 허락하여, 그동안 하지 못한 방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총원 직속 수녀원의 자매들 가운데 머물면서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시노드 준비 과정에 참여하라는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매들의 경험을 듣고 우리 수녀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그들의 체험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이는 모든 차원에서 우리에게 “함께 걸어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친교의 영성을 기르고, 경청과 식별, 그리고 우리 수녀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의 삶을 되새기는 것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시노드적인 긴간의 뛰어난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조하는 시노드의 핵심 단어들인 친교, 참여, 사명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부는 당시의 현실에서 고립되어 살지 않았고, 집안의 성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으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꿈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나 청소년기에나 젊었을 때에도, 동료들이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곤궁한 이들을 돕고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팔렌시아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단순히 본당에 머물지 않았고 팔렌시아 대학교의 다른 교수들처럼 계속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순명으로 오스마의 사제단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수도원 담장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카스티야의 작은 마을들에서 단순한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북유럽을 여행하며 그가 접했던 현실은, 이단자들에 맞서 우리 신앙의 진리를 옹호하도록 그 안에서 선교 열정을 일깨웠습니다. 도미니코는 자신의 나라, 문화,

언어, 관습을 떠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형제들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의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매일 체험하면서 선교 성소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도미니코의 초조한 마음은 그가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대면하게 했고, 그는 언제나 여기에 최선을 다해 응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의 큰 사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우리 사부에게 맡겨진 사명은 많고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는 교황 사절들의 설교 방식을 혁파했고 더 복음적인 형태로 설교하기 시작했으며, 이단을 떠난 젊은 여인들을 받아들여 프루예에 첫 봉쇄 수녀원을 만들었으며, 교황의 명으로 로마에서 무질서하게 생활하던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로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더 확고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수도회를 설립했고, 형제들을 사도들과 같은 방식으로 둘씩 보내어 수도원들을 설립하고 당시의 대학 도시들에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성 도미니코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았고 다른 이들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모든 이들을 섬세하게 대했고, 언제나 단순하게 행동하면서 말에서든 행동에서든 거짓이나 이중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넓은 애덕 안에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모든 이들을 사랑했기에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녀회로서 함께 걸어가고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충실하도록, 우리 사부의 모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선하고 더 강화해야 할 것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우리의 차이점들 사이에 친교를 이룹니까? 참여의 통로와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열어 놓습니까? 사명을 촉진합니까?

친교는 과제이고 동시에 은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협소함, 불관용, 이기심과 배타성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른 이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에게 도달하고 앓은 이들을 찾아 주님의 길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것은 분열과 차별을 일으키는 우리의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고,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이들과 잘 지내는 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열려있고 민감하다면, 각 자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친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각자가 집단으로서 우리 전체의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수녀회의 모습은 ‘나’와 ‘너’ 없이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기여할 것이 있고, 우리가 기여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청의 능력을 민감하게 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연다면 우리 공동체들 안에서 참여가 촉진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열정을 갖고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것을 나누고, 인간 가족 전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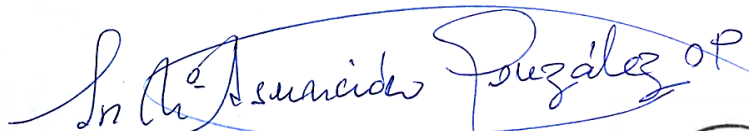
“함께 걸어감”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각자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께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시대의 표징을 읽고, 특정한 시대와 장소의 맥락 안에서 우리 카리스마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마치 시노달리타스가 새로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 도미니코가 수도회를 설립할 때에 채택했던 성 아우구스티노의 수도 규칙에 이미 “하느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체험과 행동 방식을, 교회가 우리 시대에 되살리고자 하는 정신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 사부께서,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우리 안에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활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re}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

